

베이비부머 세대의 성격특성이 웰다잉 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

최옥분¹, 김가연², 이영기^{3*}

¹단국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²단국대학교 치위생학과, ³단국대학교 임상병리학과

The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of Baby Boomers Generation on Their Perception of Preparation for Dying-Well

Ok Boon Choi¹, Ga-Yeon Kim², Young ki Lee^{3*}

¹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ankook University

³Department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요약 최근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한국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대단위 은퇴시기와 맞물려 웰다잉 준비인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베이비부머 세대의 성격특성이 웰다잉 준비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충남 천안시 인근지역의 베이비부머 430명을 대상으로 성격5요인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Ver. 23.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t-test, ANOVA 그리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후검증방법으로는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성, 호감성이 정서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정서적 불안정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향성과 성실성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둘째 외향성과 개방성이 경제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감성과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셋째 성실성이 신체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정서적 불안정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향성과 개방성, 호감성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넷째 개방성, 호감성이 사회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향성과 정서적 불안정성, 성실성은 사회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노후를 준비하는 베이비부머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웰다잉 준비인식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surveyed 430 baby boomers residing in Cheonan, South Chungcheong Province, and the surrounding areas in South Korea. The study examined five personality types to determine how the associated personality traits affect the perception of dying-well preparati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OVA,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Finally, the Scheffé test was used as a post-hoc process, and the results were compiled as follows: First, while openness and likeability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emotional perception of dying-well preparation, emotional instability had a negative impact and extroversion and conscientiousness had little significant influence. Second, extroversion and opennes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financial perception of dying-well preparation, while likeability, conscientiousness, and emotional instability had little meaningful contribution. Third, conscientiousnes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physical perception of dying-well preparation, while emotional instability had a negative influence. Fourth, openness and likeabi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ocial perception of dying-well preparation. However, extroversion, emotional instability, and conscientiousness had an insignificant influence. These results suggest methods to contribute positively to the quality of life and awareness of dying-well preparation of the baby boomer's generation preparing for retirement.

Keywords : Baby Boomer Generation, Personality Trait, Quality of Life, Dying-Well, Big Five

*Corresponding Author : Young Ki Lee(Dankook Univ.)

email: pp99pp@dankook.ac.kr

Received June 3, 2021

Revised July 6, 2021

Accepted October 1, 2021

Published October 31, 2021

1. 서론

일반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웰빙(Well-being)이라면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후회 없는 삶, 나눔, 인생의 의미 찾기 등을 채워줌으로써 삶을 행복하게 완성하는 것이 웰다잉(Dying-Well) 준비인식이라 하겠다[1-3].

지난 세기동안 서구사회에서는 좋은 죽음, 품격 높은 죽음을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의미에서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고 부정적이고 수동적이었던 죽음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4,5]. 한국 사회에서도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웰다잉이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며 죽음의 존엄성에 대하여 중요한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웰다잉 시민운동’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시민 운동적 차원에서 장기기증 및 연명의료 등의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였으며 이어 연명의료 결정법이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국가 차원에서 법제화되고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죽음의 문제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침체에 따른 실직과 파산은 극단적으로 개인 또는 가족의 동반자살로 이어지며,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질환 및 말기질환이 증가하는 등 중장년층의 죽음에 대한 불안과 삶의 위기상황을 반영하는 사회적 현상들이 만연하고 있다[6]. 이처럼 다양한 죽음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현실에서 청년 및 중장년층들에게 죽음 준비교육을 통하여 죽음을 미리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보다 진지하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충분한 자구제가 될 것이며 또한 죽음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으로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이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웰다잉 교육이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거나 노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획일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다양한 세대와 그룹을 대상으로한 프로그램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방법으로 세대별, 성격특성별 차이에 주목하여 지금 노년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세대를 대상으로 그들의 성격특성별 죽음에 관한 준비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Table 2.),[7-9].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712.5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14.6%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이다[10,11]. 한국전쟁 이후 경제성장의 주역이었고 1997년 IMF의 외환위기를 겪었던 세대이다.

또한 국가의 사회 복지정책이 수립 실행되기 이전단계에서 자녀 양육비 및 사교육비에 아낌없이 투자한 한편 부모세대 노후를 책임지거나 분담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이다. “자녀에게 버림 받는 첫세대,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라는 이들이 IMF 이후 빨라진 정년퇴직으로 대다수가 경제력이 격감하였거나 상실된 상태에서 노년을 맞이하고있다. 이러한 베이비부머세대들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여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에 중요한 일이라 여겨지며, 그들의 웰다잉 준비인식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성격특성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조사하였다.

2. 본론

2.2 연구 방법

2.2.1 연구 모형

베이비부머 세대의 성격특성과 웰다잉 준비인식간의 상호영향을 알아보기로 하자 다음의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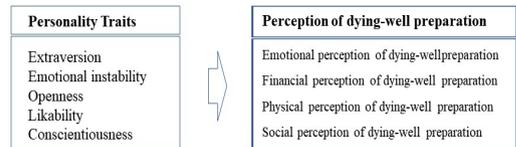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2.2 연구 가설

본 연구수행을 위해 다음 2개의 가설의 설정하였다.

- 가설 1. 베이비부머 세대의 성격특성은 웰다잉 준비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통제변수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성격특성 및 웰다잉 준비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충청남도 천안시 인근지역(천안시, 소수의 아산시 및 평택시)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430부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통계 프로그램(Ver.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차이 분석을 위해서는 T검증(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방법으로 Scheffé test를 사용하였다.

2.2.4 측정도구

웰다잉 준비인식의 하위변수는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웰다잉 준비인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웰다잉 프로그램이 중장년층의 죽음태도와 자아 통합감 및 노후 준비도에 미치는 효과[12]에서 9개 문항을 재구성하였고, 무엇이 웰다잉의 삶인가?[13]에서 4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성격특성은 외향성, 개방성, 호감성, 정서적 불안정성, 성실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의 설문항은 워크넷 직업선호도 검사지를 참고하여 32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14]. 각 문항의 리커드는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종교유무, 배우자유무, 직업, 월수입, 자녀유무, 부모동거, 주택소유, 죽음교육유무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2.2.5 연구대상의 특성

본 연구대상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종교유무, 배우자유무, 직업, 월수입, 자녀유무, 부모동거, 주택소유, 죽음교육유무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와 같다.

2.3 연구결과

2.3.1 성격특성과 웰다잉 준비인식

2.3.1.1 성격특성

성격특성에 관한 32문항을 요인분석하여 고유치 1.0 이상인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정서적 불안정성, 호감성의 5개 요인으로 추출 구성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와 요인별 문항은 [Table 2.]과 같다. 이들 요인중 성실성이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총 누적 분산량은 60.452이었고, Cronbach's a 계수가 0.739~0.894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2.3.1.2 웰다잉 준비인식

웰다잉 준비인식에 관한 13문항을 요인 분석하여 고유치 1.0 이상인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웰다잉 준비인식의 4개 요인으로 추출 구성되었으며 요인분석 결과와 요인별 문항은 [Table 3.]과 같다. 이들 요인의 총 분산은 59.217 %였으며, Cronbach's a 계수(신뢰계수)가 0.611~ 0.729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베이비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Classification		Frequency (Number of People)	Percentage (%)
Sex	Male	135	31.4
	Female	295	68.6
Birth Year	1961-1963	220	51.1
	1958-1960	97	22.6
	1955-1957	113	26.3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or lower	254	59.1
	Bachelor's Degree	138	32.1
	Graduate School	38	8.8
Religious	No	165	38.4
	Yes	265	61.6
Presence of Partner	No	61	14.2
	Yes	369	85.8
Occupation	Office worker	96	22.3
	Self-employed	165	38.4
	Professional	43	10.0
	Housewife	66	15.3
	Others	60	14.0
Monthly Income	Less than 1 mil. won	85	19.8
	1-3 mil. won	159	37.0
	3-5 mil. won	105	24.3
	5-7 mil. won	36	8.4
	More than 7 mil. won	45	10.5
Presence of Children	No	19	4.4
	Yes	411	95.6
Living with Parents	No	381	88.6
	Yes	49	11.4
Own One's House	No	56	13.0
	Yes	374	87.0
Presence of Education on Dying	No	357	83.0
	Yes	73	17.0
Total		430	100.0

부머 세대의 성격특성과 웰다잉 준비인식의 신뢰도 분석에서는 다항목의 척도로 구성된 변수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내적 일관성법(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을 이용하였다. 신뢰성 척도인 Cronbach's a 계수를 산출하여 이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3.2 성격특성이 웰다잉 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성격특성이 웰다잉 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성격특성의 5개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회귀모형에서는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하였고, 2단계 회귀모형에서는 독립변수인 성격특성 5요인의 외향성, 정서적 불안정성, 개방성, 호감성, 성실성을 추가로 투입하고, 종속변수인 웰다잉 준비인식의 경우 4개 요인으로 구성된 정서적, 경제적, 신체적 및 사회적 웰다잉 준비인식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Result of analyzing personality trait elements and r reliability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Dispersion (%)	Cumulative dispersion value (%) (Confidence Coefficient)
Faithfulness	Perform a given task faithfully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754	4.516	14.112	14.112 (.882)
	Neat and tidy	.737			
	I think I am sincere	.717			
	Live according to plans and organize well	.714			
	Proceed with deliberation before taking action	.671			
	Have a great ambition and work hard to achieve a goal	.653			
	I believe I can solve a number of problems	.649			
Extroversion	Like to be around people	.837	4.318	13.495	27.607 (.894)
	Like to lead people	.783			
	Develop bonds with people easily and makes friends easily	.777			
	Like to speak up and often becomes a leader	.669			
	Smile often, is cheerful and optimistic	.637			
	Full of energy, live an active and busy life	.607			
Openness	Active and friendly	.597	4.089	12.778	40.385 (.864)
	Show a lot of interest in art and beauty, also knows how to appreciate it	.729			
	Try out different activities and pursue something new	.726			
	Active pursuit of intellectual interest	.720			
	Develop your imagination for a creative life	.693			
	Have an intense feeling of happiness and unhappiness	.664			
	Have a wide range of thoughts	.601			
Emotional insecurity	Pursuing something new without being bound by tradition	.573	3.799	11.872	52.257 (.871)
	Feel scared easily, often gets sensitive	.822			
	Often feel guilty, sad, despair and lonely	.809			
	Gets angry at small things	.773			
	Have lots of worries and gets nervous easily	.755			
	Unable to cope with stress, swayed by the feelings of helplessness	.742			
Likeability	Feeling inferior and am sensitive to criticism from others	.729	2.622	8.195	60.452 (.739)
	Often follow others' opinions	.736			
	Unable to express anger	.682			
	Deeply consider other people's side	.625			
	Willing to help out people who are in need	.622			
Willing to forgive the wrongdoings of others easily	.613				

Table 3. Result of analysing dying-well preparation awareness elements and reliability

Factor Orde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Dispersion (%)	Cumulative dispersion value (%) (Confidence Coefficient)
Aware of social well-dying preparation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welfare centers and lifelong education center programs	.778	2.222	17.902	17.092 (.729)
	Willingness to volunteer and participate in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725			
	Willingness to donate talent to society	.721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well-dying education in the future	.705			
Aware of economic well-dying preparation	Medical expenses are prepared until death	.863	1.900	14.618	31.710 (.690)
	Able to live a financially stable life until the end of life	.749			
	Prepared for property inheritance	.644			
Aware of physical well-dying preparation	Eat regular meals for health	.814	1.874	14.417	46.126 (.685)
	Try not to overeat for the sake of my health	.741			
	Exercise regularly for my health	.725			
Aware of emotional well-dying preparation	Think that death is a natural part of life and an inevitable event	.767	1.702	13.091	59.217 (.611)
	Am ready to accept the death when the time comes	.721			
	Want a natural death without the aid of a medical device	.714			

2.3.2.1 성격특성이 정서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성격특성을 추가로 투입한 2단계

Table 4. Result of analyzing the impact of personality traits on emotional dying-well preparation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Awareness of emotional well-dying preparation					
		Level 1			Level 2		
		β	t	P	β	t	P
Demographics	Sex	-.048	-.865	.387	-.063	-1.158	.248
	Age	.117	2.255*	.025	.103	2.027*	.043
	Level of Education	.150	2.651**	.008	.090	1.540	.124
	Presence of Religion	-.001	-.030	.976	-.005	-.113	.910
	Presence of Partner	.125	2.418*	.016	.124	2.448*	.015
	Occupation 1 ^{a)}	-.065	-.929	.353	-.051	-.743	.458
	Occupation 2 ^{b)}	-.144	-1.869	.062	-.160	-2.106*	.036
	Occupation 3 ^{c)}	-.041	-.662	.508	-.035	-.574	.567
	Occupation 4 ^{d)}	-.106	-1.618	.106	-.099	-1.559	.120
	Monthly Income	.029	.474	.636	.004	.070	.944
	Presence of Children	.039	.757	.449	-.013	-.264	.792
	Living with Parents	.042	.876	.382	.035	.756	.450
	Own One's House	-.056	-1.080	.281	-.058	-1.148	.252
Presence of Receiving Education on Dying	.034	.689	.491	.014	.289	.773	
Personality Features	Extroversion				-.076	-1.223	.222
	Emotional Insecurity				-.097	-1.990*	.047
	Openness				.164	2.386*	.018
	Likeability				.138	2.588*	.010
	Faithfulness				.055	.866	.387
F		2.451**			3.511***		
R ²		.077			.141		
ΔR^2					.064		

* $p < .05$, ** $p < .01$, *** $p < .001$

^{a)} occupation 1(employee=1, the rest=0),

^{b)} occupation 2(CEO=1, the rest=0),

^{c)} occupation 3(professional=1, the rest=0),

^{d)} occupation 4(housewife=1, the rest=0)

회귀모형은 $F=3.511$,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결정계수 R^2 가 .141로서 설명력이 14.1%로 나타나 1단계보다 6.4%가 증가하였다.

성격특성에서는 개방성($\beta=.164$, $t=2.386$, $p < .05$), 호감성($\beta=.138$, $t=2.588$, $p < .05$)이 정서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정서적 불안정성($\beta=-.097$, $t=-1.990$, $p < .05$)은 정서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 중에서 정서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성격특성은 개방성이었으며, 다음으로 호감성, 정서적 불안정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양한 활동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개방적일수록, 타인을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호감적인 성격일수록 정서적 웰다잉 준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노, 죄책감, 슬픔, 절망, 고독감에 자주 빠지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성격일수록 정서적 웰다잉 준비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2.3.2.2 성격특성이 경제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1단계에 성격특성을 추가로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7.605$,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결정계수 R^2 가 .262로서 설명력이 26.2%로 나타나 1단계보다 8.1%가 증가하였다. 성격특성에서는 외향성($\beta=.133$, $t=2.287$, $p < .05$), 개방성($\beta=.127$, $t=1.997$, $p < .05$)이 경제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외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개방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외향적일수록, 다양한 활동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개방적인 성격일수록 경제적 웰다잉 준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2.3.2.3 성격특성이 신체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1단계에 성격특성을 추가로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5.058$,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결정계수 R^2 가 .191로서 설명력이 19.1%로 나타나 1단계보다 8.5%가 증가하였다. 성격특성에서는 성실성($\beta=.172$, $t=2.788$, $p < .01$)이 신체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정서적 불안정성($\beta=-.128$, $t=-2.697$, $p < .05$)은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 중에서 성실성, 정

서적 불안정성의 순으로 신체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대한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한 성격일수록 신체적 웰다잉 준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노, 죄책감, 슬픔, 절망, 고독감에 자주 빠지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성격일수록 신체적 웰다잉 준비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Table 5. Result of analyzing the impact of personality traits on financial well-dying preparation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Economic well-dying preparation					
		Level 1			Level 2		
		β	t	P	β	t	P
Demographics	Sex	.087	1.652	.099	.090	1.771	.077
	Age	.100	2.041*	.042	.074	1.575	.116
	Level of Education	.135	2.535*	.012	.055	1.016	.310
	Religious	.009	.188	.851	-.020	-.455	.649
	Presence of Partner	.009	.177	.859	.000	.010	.992
	Occupation 1 ^{a)}	-.073	-1.110	.268	-.069	-1.082	.280
	Occupation 2 ^{b)}	.039	.542	.588	.017	.243	.808
	Occupation 3 ^{c)}	-.011	-.187	.852	-.019	-.349	.728
	Occupation 4 ^{d)}	-.027	-.433	.665	-.023	-.387	.699
	Monthly Income	.272	4.705***	.000	.234	4.202***	.000
	Presence of Children	.022	.456	.649	-.017	-.361	.719
	Living with Parents	.104	2.302*	.022	.100	2.314*	.021
	Own One's House	.165	3.373**	.001	.185	3.930***	.000
	Presence of Receiving Education on Dying	.065	1.404	.161	.038	.867	.386
	Personality Features	Extroversion				.133	2.287*
Emotional Insecurity					.003	.064	.949
Openness					.127	1.997*	.046
Likeability					.020	.397	.692
Faithfulness					.097	1.640	.102
F		6.523***			7.605***		
R ²		.181			.262		
ΔR^2					.081		

* $p < .05$, ** $p < .01$, *** $p < .001$

^{a)} occupation 1(employee=1, the rest=0).

^{b)} occupation 2(CEO=1, the rest=0).

^{c)} occupation 3(professional=1, the rest=0).

^{d)} occupation 4(housewife=1, the rest=0)

Table 6. Result of analyzing the impact of personality traits on physical well dying preparation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Awareness of physical well-dying preparation					
		Level 1			Level 2		
		β	t	P	β	t	P
Demographics	Sex	-.165	-2.998**	.003	-.163	-3.077**	.002
	Age	-.009	-.175	.861	-.030	-.616	.538
	Level of Education	.154	2.773**	.006	.103	1.823	.069
	Religious	.130	2.719**	.007	.127	2.726**	.007
	Presence of Partner	-.090	-1.763	.079	-.101	-2.055	.041
	Occupation 1 ^{a)}	.031	.454	.650	.043	.649	.517
	Occupation 2 ^{b)}	.054	.709	.479	.021	.282	.778
	Occupation 3 ^{c)}	.044	.727	.468	.040	.692	.489
	Occupation 4 ^{d)}	.062	.966	.335	.072	1.167	.244
	Monthly Income	-.083	-1.375	.170	-.117	-2.002*	.046
	Presence of Children	.102	2.018*	.044	.052	1.050	.294
	Living with Parents	.097	2.056*	.040	.095	2.108*	.036
	Own One's house	.079	1.554	.121	.095	1.930	.054
	Presence of Receiving Education on Dying	.061	1.262	.208	.045	.967	.334
	Personality Features	Extroversion				.088	1.445
Emotional Insecurity					-.128	-2.697**	.007
Openness					.046	.685	.494
Likeability					-.014	-.278	.781
Faithfulness					.172	2.788**	.006
F		3.489**			5.058***		
R ²		.106			.191		
ΔR^2					.085		

* $p < .05$, ** $p < .01$, *** $p < .001$

^{a)} occupation 1(employee=1, the rest=0).

^{b)} occupation 2(CEO=1, the rest=0).

^{c)} occupation 3(professional=1, the rest=0).

^{d)} occupation 4(housewife=1, the rest=0)

2.3.2.4 성격특성이 사회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 대한 분석결과[Table 7.]과 같다. 1단계에 성격특성을 추가로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7.879$,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결정계수 R^2 가 .269로서 설명력이 26.9%로 나타나 1단계보다 13.4%가 증가하였다. 성격특성에서는 개방성($\beta=.282$, $t=4.448$,

$p < .001$), 호감성($\beta = .114, t = 2.325, p < .05$)이 사회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호감성보다 개방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양한 활동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개방적일수록, 그리고 타인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호감적인 성격일수록 사회적 웰다잉 준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Table 7. Result of analyzing the impact of personality traits on social well dying preparation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Social Well dying preparation					
		Level 1			Level 2		
		β	t	P	β	t	P
Demographics	Sex	.068	1.257	.209	.062	1.233	.218
	Age	-.044	-.873	.383	-.072	-1.541	.124
	Level of Education	.243	4.445***	.000	.123	2.285*	.023
	Religious	.150	3.179**	.002	.111	2.514*	.012
	Presence of Partner	.073	1.451	.148	.069	1.491	.137
	Occupation 1 ^{a)}	-.053	-.783	.434	-.042	-.665	.506
	Occupation 2 ^{b)}	.061	.809	.419	.045	.641	.522
	Occupation 3 ^{c)}	.046	.760	.447	.042	.757	.450
	Occupation 4 ^{d)}	-.001	-.014	.989	.004	.069	.945
	Monthly Income	.003	.055	.957	-.043	-.777	.438
	Presence of Children	-.009	-.176	.861	-.065	-1.385	.167
	Own One's House	-.008	-.170	.865	-.016	-.370	.711
	Presence of Receiving Education on Dying	.034	.673	.501	.048	1.028	.305
	Personality Features	Extroversion	.116	2.440*	.015	.076	1.730
Emotional Insecurity					.048	.826	.409
Openness					.003	.064	.949
Likeability					.282	4.448**	.000
Faithfulness					.114	2.325*	.021
	Faithfulness				.050	.861	.390
F		4.595***			7.879***		
R ²		.135			.269		
ΔR^2					.134		

* $p < .05$, ** $p < .01$, *** $p < .001$

^{a)} occupation 1(employee=1, the rest=0).

^{b)} occupation 2(CEO=1, the rest=0).

^{c)} occupation 3(professional=1, the rest=0).

^{d)} occupation 4(housewife=1, the rest=0)

2.3.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격특성 및 웰다잉 준비인식 차이 분석

본 연구에서 베이비부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격특성, 웰다잉 준비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집단이 2개인 성별, 종교유무, 배우자유무, 자녀유무, 부모동거, 주택소유, 죽음교육유무는 t-test를 실시하여 평균을 비교하였다. 집단이 3개 이상인 연령, 학력, 직업, 월수입은 ANOVA를 실시하여 평균을 비교하였고, 사후다중비교를 위해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2.3.3.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성격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Table 8.]과 같이 성별, 학력, 종교유무, 직업, 월수입, 자녀유무, 죽음교육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외향성($t = 2.920, p < .01$), 개방성($t = 2.824, p < .01$)에서 차이가 있었고, 남성이 여성보다 외향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더 많이 지니고 있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에서 차이가 있었고, 고등학교 졸업이하보다 대학원 이상에서 외향적, 개방적이며 성실한 성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종교 유무에서는 외향성, 정서적 불안정성, 개방성에서 차이가 있었고, 종교가 있는 집단이 외향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개방적인 성격을 더 많이 지니고 있었다. 직업에 따라서는 성실성($F = 3.716, p < .01$)에서 차이가 있었고, 자영업에서 성실한 성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월수입에서는 월수입이 높을수록 외향적, 개방적, 호감적이며 성실한 성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유무에서는 정서적 불안정성, 호감성, 성실성에서 차이가 있었고, 자녀가 있는 집단이 호감적이고 성실한 성격이 더 높은 반면 정서적 불안정성은 더 낮게 나타났다. 죽음교육유무에서는 죽음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개방적이고 성실한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2.3.3.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웰다잉 준비인식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웰다잉 준비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Table 9.]와 같이 성별, 학력, 종교유무, 배우자유무, 직업, 월수입, 자녀유무, 부모동거, 주택소유, 죽음교육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정서적, 신체적 웰다잉 준비인식에서 차이가 있었고, 여성보다 남성에서 정서적, 신체적 웰다잉 준비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정서적, 경제

Table 8.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personality in tandem with socio-demographic variables

Classification		N	Extroversion			Emotional Insecurity			Openness			Likeability			Faithfulness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Sex	Male	135	3.439	.676	2.920**	2.174	.755	-.992	3.289	.741	2.824**	3.513	.523	-.506	3.752	.557	1.378
	Female	295	3.225	.716		2.252	.751		3.084	.680		3.540	.530		3.667	.614	
Birth Year	1961-1963	220	3.254	.733	.714	2.210	.732	.466	3.175	.660	1.682	3.500	.531	1.052	3.677	.609	.206
	1958-1960	97	3.314	.695		2.292	.807		3.034	.752		3.592	.535		3.722	.586	
	1955-1957	113	3.349	.678		2.205	.746		3.195	.744		3.542	.512		3.703	.587	
Level of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254	3.186b	.679	10.474***	2.226	.774	.394	2.939b	.653	43.274***	3.512	.521	.445	3.627b	.584	6.109**
	Bachelor's Degree	138	3.380b	.682		2.202	.704		3.334ab	.615		3.556	.526		3.741ab	.581	
	Graduate School	38	3.695a	.834		2.325	.786		3.876a	.688		3.574	.583		3.966a	.660	
Religious	No	165	3.198	.732	-2.188*	2.131	.748	-2.097	3.030	.700	-2.759	3.503	.585	-.889	3.654	.575	-1.104
	Yes	265	3.352	.691		2.287	.750		3.222	.699		3.550	.488		3.719	.611	
Presence of Partner	No	61	3.190	.817	-1.224	2.303	.733	.852	3.110	.812	-.455	3.439	.682	-1.478	3.555	.757	-1.968
	Yes	369	3.310	.690		2.215	.756		3.155	.687		3.547	.496		3.717	.564	
Occupation	Office worker	96	3.241	.743	1.805	2.373	.760	1.985	3.140	.642	2.025	3.483	.553	.864	3.659ab	.606	3.716**
	Self-employed	165	3.355	.698		2.135	.793		3.153	.742		3.590	.509		3.817a	.549	
	Professional	43	3.458	.608		2.236	.697		3.392	.645		3.498	.446		3.721ab	.627	
	Housewife	66	3.145	.593		2.318	.667		3.002	.632		3.520	.562		3.549b	.537	
	Others	60	3.250	.842		2.139	.727		3.133	.786		3.487	.553		3.552b	.689	
Monthly Income	Less than 1 mil. won	85	3.185b	.682	4.798**	2.267	.767	.329	3.042b	.730	8.754***	3.565ab	.561	2.540*	3.585b	.544	4.980**
	Less than 3 mil. won	159	3.197b	.722		2.235	.755		2.987b	.659		3.475b	.513		3.646b	.607	
	Less than 5 mil. won	105	3.343ab	.688		2.221	.780		3.250ab	.674		3.524b	.548		3.734ab	.640	
	Less than 7 mil. won	36	3.349ab	.765		2.259	.765		3.230b	.697		3.461b	.440		3.623b	.606	
	More than 7 mil. won	45	3.673a	.595		2.115	.656		3.616a	.662		3.742a	.491		4.032a	.420	
Presence of Children	No	19	3.045	.960	-1.163	2.728	.703	2.995**	2.857	.701	-1.846	3.137	.730	-3.379	3.338	.736	-2.674*
	Yes	411	3.304	.696		2.204	.747		3.162	.703		3.550	.510		3.710	.586	
Living with Parents	No	381	3.293	.728	.053	2.224	.753	-.275	3.146	.716	-.190	3.524	.531	-.792	3.688	.602	-.581
	Yes	49	3.289	.553		2.255	.754		3.166	.617		3.588	.499		3.741	.565	
Own One's House	No	56	3.311	.676	.209	2.354	.707	1.355	3.122	.636	-.293	3.414	.552	-1.791	3.635	.534	-.789
	Yes	374	3.290	.716		2.208	.758		3.152	.716		3.549	.522		3.703	.606	
Presence of Receiving Education on Dying	No	357	3.262	.722	-1.956	2.215	.764	-.752	3.091	.701	-3.788**	3.518	.541	-1.217	3.666	.598	-2.113*
	Yes	73	3.440	.630		2.288	.697		3.429	.661		3.600	.453		3.828	.578	

† 10,000, * $p < .05$, ** $p < .01$, *** $p < .001$, a, b is the result of Scheffé verification (a)>b

Table 9.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well dying preparation awareness in tandem with socio-demographic variables

Classification		N	Emotional well-dying preparation			Economic well-dying preparation			Physical well-dying preparation			Social well-dying preparation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Sex	Male	135	4.007	.569	3.034**	3.086	.753	1.637	3.523	.598	3.419**	3.319	.713	-.486
	Female	295	3.818	.664		2.958	.754		3.299	.645		3.353	.680	
Birth Year	1961-1963	220	3.823	.675	1.972	3.009	.760	.813	3.353	.650	.644	3.405	.652	1.887
	1958-1960	97	3.897	.653		2.918	.686		3.340	.680		3.260	.738	
	1955-1957	113	3.968	.551		3.047	.802		3.428	.578		3.292	.714	
Level of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254	3.794 b	.625	6.345**	2.885b	.726	13.107***	3.303b	.628	7.133**	3.204 b	.672	14.876***
	Bachelor's Degree	138	3.964 ab	.631		3.065b	.748		3.399b	.639		3.496 a	.657	
	Graduate School	38	4.123 a	.691		3.518a	.746		3.711a	.606		3.711 a	.691	
Religious	No	165	3.871	.554	-.174	2.966	.770	-.710	3.267	.656	-2.661**	3.185	.717	-3.795***
	Yes	265	3.882	.690		3.019	.747		3.434	.620		3.441	.655	
Presence of Partner	No	61	3.710	.811	-2.209*	2.880	.801	-1.326	3.399	.641	.384	3.176	.755	-2.038*
	Yes	369	3.905	.605		3.018	.747		3.365	.639		3.370	.676	
Job	Office worker	96	3.927	.583	1.647	2.885 ab	.733	4.351**	3.378	.632	.380	3.240	.732	2.135
	Self-employed	165	3.828	.650		3.156a	.776		3.368	.678		3.398	.643	
	Professional	43	4.000	.568		3.132a	.784		3.465	.609		3.552	.635	
	Housewife	66	3.763	.784		2.803b	.679		3.354	.596		3.292	.626	
	Others	60	3.972	.560		2.867b	.706		3.311	.613		3.258	.816	
Monthly Income	Less than 1 mil. won	85	3.859	.663	.925	2.765b	.811	13.654***	3.384	.608	1.758	3.356b	.670	4.715**
	Less than 3 mil. won	159	3.820	.589		2.857b	.695		3.356	.623		3.272b	.675	
	Less than 5 mil. won	105	3.902	.673		3.083b	.691		3.327	.650		3.267b	.744	
	Less than 7 mil. won	36	4.009	.635		3.120b	.695		3.250	.554		3.340b	.486	
	More than 7 mil. won	45	3.956	.702		3.644a	.649		3.585	.753		3.744a	.677	
Presence of Children	No	19	3.684	.503	-1.346	2.737	.594	-1.547	3.018	.603	-2.474*	3.276	.707	-.427
	Yes	411	3.886	.646		3.011	.760		3.386	.636		3.345	.690	
Living with Parents	No	381	3.870	.642	-.710	2.971	.738	-2.100*	3.343	.635	-2.442*	3.348	.683	.446
	Yes	49	3.939	.633		3.211	.854		3.578	.630		3.301	.746	
Own One's House	No	56	3.893	.558	.192	2.577	.556	-4.577***	3.202	.657	-2.112*	3.246	.687	-1.127
	Yes	374	3.875	.653		3.061	.761		3.395	.633		3.357	.690	
Presence of Receiving Education on Dying	No	357	3.853	.637	-1.729	2.972	.737	-1.610	3.343	.655	-2.227*	3.291	.681	-3.440**
	Yes	73	3.995	.649		3.128	.831		3.502	.536		3.592	.683	

† 10,000, *p<.05, **p<.01, ***p<.001, a, b is the result of Scheffé verification (a>b).

적, 신체적, 사회적 웰다잉 준비인식에서 차이가 있었고, 대학원 이상에서 모든 웰다잉 준비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종교유무에서는 신체적, 사회적 웰다잉 준비인식에서 차이가 있었고, 종교가 있는 집단이 신체적, 사회적 웰다잉 준비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유무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정서적, 사회적 웰다잉 준비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경제적 웰다잉 준비인식($F=4.351, p<.01$)에서 차이가 있었고, 자영업, 전문직에서 경제적 웰다잉 준비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월수입에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 웰다잉 준비인식에서 차이가 있었고, 월수입이 높을수록 경제적, 사회적 웰다잉 준비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유무에서는 자녀가 있는 집단이 신체적 웰다잉 준비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동거에서는 경제적, 신체적 웰다잉 준비인식에서 차이가 있었고, 부모와 동거하는 집단이 경제적, 신체적 웰다잉 준비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주택소유에서는 경제적, 신체적 웰다잉 준비인식에서 차이가 있었고, 주택을 소유한 집단이 경제적, 신체적 웰다잉 준비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죽음교육유무에서는 죽음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신체적, 사회적 웰다잉 준비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3. 결론

본 연구는 개인의 성격특성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웰다잉 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로 분석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웰다잉 준비인식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성격5 요인 중 웰다잉 준비인식에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이는 성격특성은 개방성, 호감성, 외향성, 성실성이었고 정서적 불안정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웰다잉 준비인식에 긍정적 영향관계를 보이는 성격특성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개방성과 타인과 공감을 잘하고 배려심이 많은 호감성, 사람을 좋아하고 쉽게 친해지며 적극적인 외향성 그리고 책임감이 크고 목표 지향적인 성실성이었고, 걱정, 두려움, 열등감, 불안, 분노, 자의식에 자주 빠지는 정서적 불안정성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유[15]의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 사회·여가활동이 노후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결과에서 개방성과 성실성이 신체적 노후준비인식에 정(+)의 영향, 정서적 불안정성은 부(-)의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노후준비인식에서는 성실성 개방성 외향성이 정(+)의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하였다. 또한 중년 남성의 Big 5 성격특성과 우울증 및 은퇴 불안과의 관계를 연구한 김[16]의 보고에서는 신경증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으며, 친화성과 성실성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신경증이 높을수록 은퇴불안이 높으며, 외향성이 높을수록 은퇴불안이 낮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정서적 불안정성의 성격이 높을수록 삶의 질도 낮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크므로 정서적 불안정성의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격특성과 웰다잉 준비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첫째로 성격특성에서는 남성이 외향적이고 성실하며 개방적인 성격이 더 높게 나타났고, 호감성, 정서적 불안정성은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 종교유무, 직업, 월수입, 자녀유무, 죽음교육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성이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 수준이 높고 신경증 수준이 낮게 나타난 마[17]의 5대 성격 특성이 직무 및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성별 및 계급 규제 효과)의 연구보고와 일부 일치하였다. 둘째로, 웰다잉 준비인식에서는 남성이 정서적, 신체적 웰다잉 준비인식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 종교유무, 배우자유무, 직업, 월수입, 자녀유무, 부모동거, 주택소유, 죽음교육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 학력, 종교유무, 직업, 월수입, 자녀유무 죽음에 대한 교육 여부 그리고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개인의 삶의 환경적인 요인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 하는 점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나 사회단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노후를 준비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웰다잉 준비인식에 긍정적인 기여가 예상되며 또한 정부나 관련 사회단체들의 성격특성에 맞는 적절한 웰다잉 및 죽음준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References

- [1] W. G. Cho, "The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Well-dying", *Booknamu*, Seoul, 2015.
- [2] E. Levinas, "God, death and time, Trans Bettina

Bergo, ed. *Jacques Rolland.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 [3] I. J. Park, "Learning happiness from well-dying", *New Generation*, 2018.
- [4] S. O. N. G. Yoon, "A study on the meaning of life for middle aged adults, spiritual well being and attitude towards death", *master thesis for Dongkook university Buddhism culture department*, 2015.
- [5] E. Kubler-Ross, "Living with Death and Dying", *Simon & Schuster/Touchstone*, 1981.
- [6] G. J. Sin,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impact of well dying education on middle and old aged people", *master thesis for Hoseo university cultural well being and counselling department*, 2008.
- [7] D. W. Fiske, "Consistency of the factorial structures of personality ratings from different sources",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44, No.3, pp.329-344. 1949.
- [8] R. B. Cattell, "The Description and Measurement of Personality", *New York: Harcourt, Brace& World*, 1996.
- [9] P. T. Costa, & R. R. McCrae, "professional manual: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PI-R) and NEOfive-factorinventory(NEO-FFI)",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92.
- [10] G. H. Cheong, S. J. Lee, Y. G. Lee, S. B. Kim, D. Sunwoo, G. L. Kim, B. M. Park, H. Y. Yoo, E. J. Lee, "The reality of baby boomers' living and their well being desire" a report fro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0.
- [11] www.census.go.kr, *population Census from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0.
- [12] M. S. Jang, "The effect of well dying preparation program of middle and old aged people on their attitude towards death, self integrity and preparation for old age", *PH.D Thesis for Daegu Haany university*, 2016.
- [13] Konyang university well dying syncretism research society, "What is well dying life?", *Cloudybook*, 2019.
- [14] <http://www.work.go.kr>, *worknet occupational preference test*.
- [15] I. S. Yoo, "The impact of baby boomers' personality and social leisure activity on their preparation for old age", *PH.D thesis for Hoseo university venture department*, 2012.
- [16] B. R.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Big 5 personality traits and depression and retirement anxiety of middle aged men", *master thesis for Sookmyung university*, 2019.
- [17] G. J. Ma, "The impact of big 5 personality traits of local public officials on their satisfaction with their duty and life : regulation effect on gender and rank", *master thesis for Gach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policy*, 2014.

최 옥 분(Ok Boon Choi)

[정회원]



- 2012년 3월 :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이학석사)
- 2020년 12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보건학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사임당화장품 연구소장 및 대표이사

<관심분야>

보건사회학, 보건학, 공중보건학

김 가 연(Ga-Yeon Kim)

[정회원]



- 2005년 2월 :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석사)
- 2012년 2월 : 단국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임상미생물학, 보건위생학, 항생제내성

이 영 기(Young Ki Lee)

[정회원]



- 1993년 3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 미생물학(석사)
- 2000년 8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 미생물학(이학박사)
- 2002년 3월 : 텍사스주립대, 연구원
- 2005년 9월 ~ 현재 : 단국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보건학, 공중위생학, 병원미생물, 항생제내성